



삼성·현대차 등
국내 주요기업
미래 인재 확보 나서
04



Economy

코스피	2563.34 (-18.84)	코스닥	917.95 (-3.53)
금리 (국고채 3년)	3.765 (0.000)	환율 (원/달러)	1330.50 (-0.10) (6일)

HMM 인수 '새우 3파전'... 자금 부담, 승자의 저주 우려

하림-LX-동원 후보 압축
대규모 금융조달 없이 불가
인수엔 고금리로 빚 갚아야
HMM 재무지표 악화 가능성
산은·해진공 영구채도 과제



HMM 선박 /HMM

'HMM 매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독일 해운사 하팍로이드가 탈락하면서 국내 3파전으로 첫 발걸음을 땀다. 후보군은 하림그룹, LX그룹, 동원그룹으로 압축됐다. 결국 이들의 자금 동원력이 HMM 매각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HMM 인수 적격후보대상자(쇼트리스트)에 선정된 3개 그룹은 이날부터 두달 동안의 실사에 들어갔다. 자금유동성이 100억달러(한화 약 13조원)로 가장 컸던 하팍로이드가 한국 선사의 해외 매각을 우려하는 의견 속에서 최종 입찰 후보에서 제외되면서 나머지 세 그룹의 자금유동성이 주목을 받는 실

정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국적선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HMM 인수를 통해 한국 해운산업에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자본·경영 능력을 갖춘 업체가 인수기업이 되길 원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HMM 매각가격은 영구채 1조원 주식 전환을 포함해 매각가가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적격인수후보군에서는 이를 온전히 감당할 후

보에 없는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MM의 올 상반기 기준 자산은 26조6440억원에 달하는 반면, 원매사 기준에서 LX그룹의 LX인터내셔널은 8조3587억원, 동원산업은 7조1326억원, 하림지주는 13조6132억원 수준으로 모두 HMM보다 기준 자산이 낮다. 다만 금융권과 손을 잡고 자금력을 얼마나 더 끌어올 수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후보별로 자체 자금력을 살펴

보면, 먼저 LX그룹은 현금보유량이 2조4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LX그룹이 조단위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LX인터내셔널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발행할 주식 수를 기존 8000만주에서 1억 6000만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시행했다. 이는 추가 발행 가능한 주식이 9200만주에 달하는 셈으로, 2조가 넘는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LX인터내셔널의 경우 물류회사인 LX판토스와의 시너지를 고려하고 있다.

동원그룹의 경우는 현금성자산은 5000~6000억원으로 알려졌다. 동원그룹은 동원로엑스,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 등 물류 관련 자회사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동원그룹은 하나은행을 필두로 한 금융회사와 인수금융 조달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벌크선사 팬오션을 운영하고

있는 하림은 JKL파트너스와 손잡고 HMM 매각에 나섰다. 두 회사는 팬오션을 2015년 인수할 때도 함께한 바 있다. 아울러 하림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투자증권 등의 주요 시중은행을 인수금융 대주단으로 끌어들였다.

결국 어느 정도의 자금력을 끌어낼 것인가가 관건이지만 현재로서는 대규모 인수금융 없이는 HMM을 품을 후보는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인수를 해내더라도 당분간은 HMM에 대한 투자보다는 높은 금리로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HMM의 재무 지표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남은 1조6800억원 영구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부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들이 보유한 영구채의 주식 전환이 시작되면 HMM보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인수 기업 입장에서는 HMM의 현금 영구채 매입금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유찰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현재 산은은 유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바는 없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3 물류&모빌리티포럼'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초국경 물류위한 현재와 미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도래하면서 글로벌 물류도 대변혁이 시작됐다. 코로나19 기간 폭발했던 국내 물동량은 잠시 소강 상태다. 반면 글로벌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시장의 지속 성장속에 첨단 기술의 물류 분야 접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이동로봇, 드론, 전기차 등 모빌리티까지 기술 융합에 적극 가세하면서다. 이에 따라 퍼스트마일, 미들마일, 라스트마일의 이동은 더욱 빨라지고 또 효율화되고 있다. 기업들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업간, 얼라이언스(동맹)간 이합집산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초국경 물류를 잡기 위한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에서 조명해본다.

- 주 제 :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아
- 일 시 : 2023년 9월19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등 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 의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기조강연 : 인천대 송상화 동북아물류대학원장
- 강 연 : 아워박스 박철수 대표,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대표, 로지올(생각대로) 최규범 부사장
- 후 원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尹 "韓美日, 아세안 전적 지지... 신규 협력분야 발굴"

韓-아세안 정상회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당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순방 2일 차인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며 우리의 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며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

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이어 "3국은 이를 위해 연례한 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정상회의를 하고 아세안에 대한 3국의 지지와 협

력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밤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이후 첫 다자회의로서 해당 합의를 이행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은 3국의 아세안에 대한 지지를 실질적인 협력과 미래 비전으로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정부 "오염수 명칭, 현재까지 유효...어민 쪽에서 처리수 굉장히 주장"
▲ 이재명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 정권 퇴행 멈춰 세우는 전초전 될 것" /사진 뉴시스

▲ 국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 국민통합위, '고립·은둔' 전국민 실태조사 제안... "280만명 추정"



▲ 정무위, '국감 불출석'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등 고발 /사진 뉴시스
▲ 통일부 "윤미향, 일방적 주장... 조총련 접촉신고 있어야"